

바다 문학 개념어 1/3

1. 문학이란

1.1 서정문학

1.1.1 독해의 방법과 기초

1.1.2 시상 전개: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 선경후정, 기승전결

1.1.3 어조

1.1.4 심상

1.1.5 운율

1.1.6 다양한 표현 방식- 변화주기 강조하기 비유하기

1.2 서사문학

1.2.1 독해의 방법과 기초

1.2.2 구성방식

1.2.3 인물 제시방식

1.2.4 사건 서술방식

1.2.5 서술자의 개입

1.3 극문학

1.3.1 독해의 방법과 기초

1.3.2 희극용어 & 지시문

1.3.3 시나리오 용어 & 지시문

1.4 고전문학

1.4.1 독해의 방법과 기초

1.4.2 기와 설의 개념

시와 문학 개념어 1/3

문학이란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주제)을 언어적으로 형상화한 것(형식)이다

표현하고 싶은 내용과 형상화 방법은 하나로 이어지기에

형상화 방법을 설명하는 문학 개념어는 매우 중요하다

문학을 표현 양식으로 나눌 때 서정문학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를 세계의 자아화로 정리하기도 한다

서정에서는 자아가 대상과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서와 감정, 태도, 인식을 보이는지 확인하자

ex) 나무는 추운 겨울에 얼굴이 찢어지듯

결코 굽히지 않는다

연약한 새끼를 자기 몸에 품으면서

나무는 눈 속에서 겨울을 낸다

부딪히고 찢어지고 버티면서

온다고 하는

오는

봄을 생각하면서

화자는 나무라는 대상에 어떠한 현실에도 굽히지 않고 인고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투영한다. 이렇게 기존의 나무에 새로운 인식을 투영함으로써

나무라는 객관적 세상을 화자의 주관적 세계 안으로 포섭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나무에 의지를 지니는 인격을 투영함으로써 그리고

‘온다고 하는/오는’과 같은 시어의 변형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시험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2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한다

시적 자아 시적 화자는 누구인가/ 시적 대상과 상황은 어떠한가/

여기에 어떠한 인식을 투영하고 있는가. 특히 이때는 대상의 인식과 화자의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ex) 노인은 밤새도록 읊는다

바다 문학 개념어 1/3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계속 읊는다

‘대상은 노인이고 상황은 노인이 우는 것이다. 화자의 정서가 극도의 슬픔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유형화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정리한 것처럼 양극단에 외적 대상에 대한 사랑과 추구 내적 자아에 대한 분석과 사고를 두고 가운데 역사나 세태 같은 외적 대상에 대한 비판 외적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반성 회고 등을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알 수 있듯 모더니티의 핵심은 외적 대상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사랑에서 사랑을 포함한 다양한 정서로의 확장이 있다

이런 틀을 시험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정리해보면

한용운과 김소월로 대표되는 전통적 서정의 경우에는

떠나간 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절대자에 대한 항구적 사랑의 태도

자연물 등의 외부의 대상일 경우에는 예찬적 태도가 존재할 수가 있으며

독재와 전쟁 등 공동체의 현실에 대한 극복의지와 저항의지/ 절망과 체념의 태도

외적 대상에 대한 인식에 예찬/ 비판/ 새로운 인식을 통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 회고적 태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연	모임, 풍류, 일체감
	경외, 존경심
님 임금 절대자 진리	변함없는 사랑, 존경심, 경외, 추구
일제 강점 현실, 독재, 전제 권력, 부정 세태	대결, 극복, 저항의지, 비판
	절망, 체념
외적 대상	새로운 인식
자신의 삶	반성 성찰 회고

바다 문학 개념어 1/3

형태와 내용의 측면에서 모더니티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예시

(오렌지 기하학)

위치 A, Topological Eye (White)

커피잔(A) 발생한다

말한다(B) 이 도넛 참 먹음직스럽군

말한다(C) 그건 탄환에 관통된 네 머리아

(y를 위하여)

너는 나를 버렸지

이젠 헤어지자고

너는 날 버렸지

산속에서 바닷가에서

나는 날 버렸지

(중략)

널 내속에서 다시 날고 말거야

내 아이는 드센 바람에 불려 지상에 떨어지면

내 아이는 드센 바람에 불려 지상에 떨어지면

내 무덤 속에서 몇 달 단 파스하게 지내다

또다시 떠나가지 저 차가운 하늘 바다로,

오 개새끼

못 잊어!

(서정주 VS 진운영- 항헌산 비평가의 설명)

서정주

순이야, 영이야, 또 돌아간 밤아

굳이 잠긴 잿빛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하늘가에 머무른 쫓겨나온 보아라

바다 문학 개념어 1/3

한없는 누에실의 물과 날로 자 늘인
채일을 두른 듯, 하늬한 하늘가에
밤뿔 부비며 열려 있는 꽃봉오리를 보아라

순이야, 영이야, 또 돌아간 밤아

저,

가슴같이 따뜻한 삼월의 하늘가에
인제 바르 숨쉬는 꽃봉오리를 보아라.

진은영

위대한 악을 상속 받았던 도둑들은 모두 사라졌다
밤 속에 가득하던 전갈들도

혼자 바닷가를 걷다가
바위와 바위 사이 구멍에 끼인 발

부어올라 비하지지 않는,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

검은 비닐봉지조차 가끔은
주황 지느러미가 빛나는 금붕어를 쫓아낸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이런 예언을 듣고
모든 표정이 사라지는 한방중에

두 시는 모두 내용(주제 or 정서)에 있어서는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익숙한 내용을 표현합니다,

바다 문학 개념어 1/3

그러나 시어의 선택을 보면 검은 비닐봉지를 사용한 진은영의 시와

순이야, 영이야, 또 돌아간 남아처럼 음성모음에서 양성모음으로 이어가는 서정주의 시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비평가는 전통적 서정의 형식은 잘 만들어진 말이 정서를 조직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의 이미지와 함께 정서가 불쑥 튀어나온다고 했다

서정 문학의 중요한 특징인 순간성까지 고려해서 위의 내용을 복습하면

작가는 일상을 살다가 인상 깊은 하나의 장면을 볼 것이다

그러한 장면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 혹은 특수한 시대적 모습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힘겹게 빨래를 하면서 더러운 부분이 깨끗해지는 모습에서 힘들었던(외적 대상- 일반적인 현상) 자
신의 삶을 되돌아보고(내적 자아- 반성 성찰 회고)

나의 삶 역시 본래는 이렇게 될 수 있기에 힘내야겠다는 성찰의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

여행지에서 너무나 인상 깊은 장면을 보면서

그러한 대상의 모습에 몰입하거나 자신의 삶의 기억을 회상할 수도 있고

밥을 먹으면서 멀치의 딱딱함에 깊은 인상을 받고

부정적인 시대 현실에 대한 고발과 저항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문제 풀이의 원리를 이해하기다>

원칙: 내용 일치 & 개연적 이해 즉 특정한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

어려운 보기 문제 풀이는 보기와 반대/ 문장 자체의 모순/ 보기에서 알 수가 없는 것

ex1)

(가) 낙엽은 풀 - 라트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르러진

도루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뽕으며

바다 문항학 개념어 1/3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육(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팡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 - 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몰로 항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월서정 -

(나)담쟁이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얽혀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가 푸른 하늘에 날려 납작하게 날고 있다
들쭉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반자리를 만들고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리꽂아 누린 돌멩이 위에 엮힌다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

(가)는 '길'을 '구겨진 넥타이'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나)는 '길 밖'과 '길 한켠'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군
고3 2006 45번 (0 X)

X- 내용일치를 넘어 감상을 묻고 있는 것이다. 길은 들판을 달리며 그 들판에는 공장이 있다, 전체적으로 쓸쓸한 분위기이기에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이라는 선지는 적절하다. 그러나 (나)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주제가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상들은 서로 연결되게 된다. 단어

바다 문학 개념어 1/3

자체가 중심에서 벗어난 것은 맞으나 이것이 대상들 간의 거리감으로 의미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시상 전개

시상 시 詩 생각 想

시에 드러난 사상이나 감정 즉 시에 드러난 생각과 감정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서술하는 것이기에 결국 이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시가 어떻게 서술되는가 시의 구조가 무엇인가

소재가 어떻게 배열되는가와 연결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실제 선지>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고3 2109 43번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고3 2106 22번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고3 2006 43번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3 19수능 43번

<판단의 기준점>

사건의 선후 관계, 서사적 흐름, 작품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 사건, 대상이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이다
- 사건의 흐름이 그 선후에 뭉쳐있다, 특히 이때는 작품 내의 시간의 흐름

회상

- 지난간 과거를 다시 떠올린다 특히 과거의 장면

계절의 변화

- 계절의 시간적 배경이 변화해야 한다

<설명>

'사건의 선후 관계, 서사적 흐름'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자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바다 문학 개념어 1/3

대표적인 부분은 대상의 변화 상황의 변화가 명백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사건의 선후 관계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즉 아침에는 무엇을 했고 점심에는 누구와 만났고 저녁에는 누구와 밥을 먹었다고 하는 구조가 대표적
좀 더 쉽게는 드라마를 생각하면 된다. 과거의 장면과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 것

이러한 시간의 흐름 즉 사건의 선후 관계가 부분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때는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

관련된 기술은 이수능 정지용의 이동차에 등장한 지문

“자작나무 덩그러니 불이 도로 피어 불고”라 선지 “살내의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
이다.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연물의 변화나 명시적으로 시간이 흘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와사등으로 해가 날개꼬리를 집는다 별이 낮아졌다이다

cf) 어그제 겨울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같은 표현- 시간의 흐름 VS 그렇지 않다

우선 명백하게 시간의 경과가 표현화된 것은 맞다 그러나 발화시 기준으로 단순히 과거를 서술한 것일 수도 있다. 드라마를 생각하면 위의 부분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것

“뒤축의 꿈이 몇 번이고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오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라고 하기 어려운 점도 이와 같다

다만 어그제 겨울지나 새봄이 돌아오니는 명백하게 시간이 경과한 것은 맞기에 고민하지 말고

시간의 흐름/ 경과가 가능한 하지만 다른 것부터 먼저 고민하기로 정리하자

회상

회상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지나간 일을 돌이켜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특정한 장면을 떠올리거나 지금은 없는 대상을 그리워하는 것이 회상의 범주에 들어간다.

단순히 과거면 전부 회상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장면과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서 과거의 구체적 장면과 과거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상을 시간의 흐름과 연결할 때 회상이 있으면 현재의 모습이 없어도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보는 경우와 좀 더 많은 조건을 붙이는 관점이 나뉜다. 여기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보자.

실제 시험에서는 과거 회상의 의미 더

과거를 드러내는 전성어미 더 과거를 나타내는 있/았 있었 등 명시적 기준점이 있는 경우가 나온다.

바다 문학 개념어 1/3

ex) 나희덕 못위의 잠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 가득 차고

머리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감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밤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중략)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한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었을까요

아이들은 달리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장면이 드러나고 있으며 던 같은 명시적인 기준도 있는 명백한 회상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진개이구나.’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는 특히 자연물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다

여름에는 대상과 상황이 어땠었고 겨울에는 대상과 상황이 어땠었다 같은 구조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 등장한다.

계절의 변화 역시 작품 내적 시간이 흐른 것이 필요하다

내린 비가 몇 해인가, 흘렀다. 이미 끝나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 작품 내적으로 시간이 흘렀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할 때 전부를 다 보아서는 안되고 핵심적인 구절만 바르게 보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작품 내적 시간의 흐름

너 와 헤어지고 몇 해가 흘렀다.

뒤축의 굵이 몇 번 갈렸다.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을 드러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진개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인의 생각과 정서가 구체화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어렵다

핵심은 시간적 배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바다 문학 개념어 1/3

<기출OX>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항온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옥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고3 2109 43번(O X)

(가)높은데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산다 문학 개념어 1/3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피트들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초벌로
어둠 속에 내려 떨어진 셋별아 송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더거오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사릿수를 사양하라.

여기 높은데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바다 문학 개념어 1/3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약삭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뿔뿔이라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태수, 나무의 수사학 1 -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03 2106 22번 (0 x)

어촌(漁村)은 나의 벗 공백공의 자호(自號)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라에 급제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갓끈을 나부끼고 인끈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증자가 상송(商頌)을

바다 문학 개념어 1/3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억할 수 없다. 염자릉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어떤 때는 낚싯대를 잡고, 외로운 배를 노 저어 조류들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배들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를 흘러간다. 구운 고기와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 주고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불며, 돛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흰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聖)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샷갓을 걸치고 그물을 건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둡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기만 하다. 어촌의 땀은 가물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빗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 (중략) ...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드나무 늘어진 낚시터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드리운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건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저 영달에 열매여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悠悠自適)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뜯어먹고 같이 하고 공명을 헛신작 벗어 버리듯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배사(背死)되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②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마냥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을축년 겨울 어느 날.

- 권근, 어촌기 -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고3 20수능 23번(0 x)

[A]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바다 문학 개념어 1/3

곳에 이르니,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배백배백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연한 별세계라.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으되, '만고총결문'이라 뚜렷이 쓰여 있었다

[B] 이별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피 울고, 그윽한 두견성은 불여귀를 일삼았다.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길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은 희미하기만 했다

[B]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낙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고3 2006 24번 (O X)

CF) 알아두면 좋은 어휘 안만- 현실에 떨어지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인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한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목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리지니

열두 발 쌍뚝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윈두 뚝 초석(草席) 뚝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굵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배바지고 얼어지려

상하좌우 배 방 너른 일일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돌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고3 19수능 43번 (OX)

바다 문학 개념어 1/3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x- 가의 경우에는 밤에서 아침으로 사건의 선후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주변 풍경 변화와는 큰 상관이 없다. 나 역시 공간의 변화도 그에 따른 풍경 변화도 드러내고 있지 않다

o- 공백공의 말을 보면 낮과 저녁 그리고 깊은 밤, 여름날과 겨울날에 따른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부의 삶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을 지향함을 드러내고 있다

x- 우선 시간의 흐름은 맞다.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3가지 방식을 기억하기 즉 명시적으로 흘렀다고 하거나(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과거에는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지난 가을에는, 꽃이 질 때는 이번 봄에는, 꽃이 필 때는) 화자가 있는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해가 노루꼬리 해가 날개를 접는다). 여기서는 해가 서쪽 산위로 떨어지고 달은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다만 낙관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특정한 구절에서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흐름이 느껴질 경우에는 작중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o- 시간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표지인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 해가 뜬다 달이 진다 등 화자가 있는 공간에서 시간이 변화하는 것, 었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등 명시적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 중 화자가 있는 공간에서 시간이 변화하는 것, 또 해 뜨기 전에 어땠는데 해가 뜨고 나니 달라졌다는 등으로도 읽을 수 있다.

바다 문학 개념어 1/3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실제 선지>

'화룡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고 2106 38번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3 2006 35번

<판단의 기준점>

한 대상에서 좌우 상하

한 대상에서 확실하게 다른 대상으로 이동

풍경에서 가까운 것을 보다가 먼 곳을 보거나 그 반대

내면에서 외부의 경지로 혹은 그 반대

대상을 바꾸는 것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우포늪 왓새)

<설명>

시선의 이동의 경우에는 화자의 이동과는 상관 없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혹은 대상의 특정 부분이 달라지면 참이라고 할 수 있다.

ex) 그녀의 눈은 늦은 밤 소나기를 뚫고 지나가는 차의 라이트처럼 격렬히 빛난다
그녀의 입은~, 시선의 이동 참

그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좌에서 우로 등 다양하다.

선경후경과 원경과 근경 같은 선지 역시 시선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

"두만강에 풀빛은 짙어만 가는데 냇물 여인 슬픔은 더해만 가네" 같은 구절에서

외경에서 내경으로 즉 자연의 모습에서 내부의 정서로 시선이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안저에 버려있는 붉은 꽃과 방초에는 나비가 찾아오고 높은 산봉우리에도 청초가 깃든구나"

같은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이동 역시 시선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할 부분이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전체 풍경에서 고라는 대상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다가 다른 대상만 보면서 이야기하면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로 볼 수가 있다

다만 대상의 이동에서는 고라는 대상을 바라보다가 명백하게 다른 대상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풍경 속에서 잠시 시선이 머무는 부분이 바뀌는 것은

바다 문학 개념어 1/3

즉 우포는 와새에서 다른 대상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선의 이동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시선의 이동은 실재하는 대상에 관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상상 속의 경우에는 시선의 이동으로 잘 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해석과 관련해서도 반론은 가능한데

박목월의 산도화가 그러하다.

ex) 우포는 둔치, 그 눈부신 보빛 위에 자유영 깎듯 질러 놓는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험험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커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는가

소목 장재 툇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포전쟁* 넘어가는

저 와새들

ex2)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바다 문학 개념어 1/3

암사슴

발을 씻는다.

<기출OX>

그 알피 너레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러 이서

주야의 흘러 내여 창해(滄海)에 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디 삼일우(三日雨)를 더련느냐

음어에 이온 뜰*을 다 살와 너어스라

마하연 모길상 안문재 너러 디어

외나모 써근 다리 불정대 올라 하니

‘화룡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고3 2106 38번

(O X)

(가)홍진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어 멋더하고

넷사람 풍류로 미칠가 못 미칠가

천지가 남자 몸이 날만 한 이 하진마는

산림에 못쳐 이서 지락을 모를 것가

수간모옥을 벽계수 알피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세라

엇구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형화는 석양리에 푸여 있고

녹양방초는 세우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번가 붓으로 그리 번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수뜰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고태로다

물아일체에니 흥이야 다를소냐

시비에게 거러 보고 정자애 안자 보니

소요은영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산다 문학 개념어 1/3

한중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트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이란 오늘 하고 목기란 내일 하새
아침에 채산라고 나조해 조수하 새
갓 피여 닉은 술을 갈건으로 밧타 노코
꽃나무 가지 것거 수 놓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 듯 부러 녹수를 건너오니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
준중이 뷔엇거든 밧다려 알외여라
소동 아히드러 지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하야 ㉠시냇가의 호자 안자
명사 조흔 물에 잔 시어 북어 들고
청류를 굶어보니 때오느니 도화이로다
무릉이 갓갑도다 저 매이 긴 거이고 - 정국인, 상훈곡-

(나) 고산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
주모복거하니 벗넘네 다 오신가
어즈버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1수>

일곡은 어디의오 관암에 해 비추다
평무에 내 거드니 원산이 그림이로라
송간에 녹류를 노코 벗 오는 양 보노라 <2수>

이곡은 어디의오 화암에 춘만거다
벽파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 엇더리 <3수>

오곡은 어디의오 은빙은 보기 둔타

바다 문학 개념어 1/3

수변 정사는 소쇄함도 가이 없다

이 중에 강하고 하려니와 영월음풍하리라<6수>

칠곡은 어디미오 ㉠ 풍암에 추석 도타

청상 얹게 치니 절벽이 금수이로다

한암에 혼자서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8수>

구곡은 어디미오 문산에 세모커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무쳐셔라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업다 하더라<10수> -이이, 고산구곡가-

(가)의 화자는 ㉠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 흐르 흐르 흐르 흐르 가을 아침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수풀이 흐르르 벌레가 흐르르

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짚어 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 나가나니

온 살결 터럭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

나는 수풀의 정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나도 이 아침 청명의 가장

고요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

수풀과 벌레는 자고 깨인 어린애라

밤새워 뉘고도 이슬은 남았다

남았거든 나를 주라

나는 이 청명에도 주리나니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 쉬지 않았노

바다 문학 개념어 1/3

햇살이 처음 쏟아오아
청명은 갑자기 으리리한 관을 쏜다
그때에 툭 하고 동백 한 알은 비바지나니
오! 그 빛남 그 고요함
간밤에 하늘을 짝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

온 소리의 앞 소리요
온 빛깔의 비꽃이라
이 청명에 포근 चु어진 내 마음
감각의 낫익은 고향을 찾았노라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노라

-김영랑, 청명-

(나)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어
강물 위에 짹짹 구슬알을 쏟아냈다 하자.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단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메다
이마의 구슬땀 씻어물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곤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 하자

아무리먼 어떤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가는 오월도 청정한 날에

바다 문학 개념어 1/3

소적석사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실는 날에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고3 2006 35번 (O X)

(가)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통해, (나)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고3 2006 35번 (O X)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짙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흐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새싹새싹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 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 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끝이 징그러운 바람이며.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거주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열매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별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짙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흐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휴전선 -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바다 문학 개념어 1/3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들더니
오늘은, 와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바람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밭 질러 놓는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커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는가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들 치며 동포연제* 넘어가는
저 와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부르익힌다
* 와새 : 왜가리의 별명.
* 동포연제 : 판소리의 한 유파.

- 배한봉, 우포늪 와새 -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3 1906 28번(OX)

<빈칸>

시선의 이동의 경우에는 ()라는 상관 없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혹은 대상의 특정 부분이 달라지면 참이라고 할 수 있다.

ex) 그녀의 눈은 늦은 밤 소나기를 뚫고 지나가는 차의 라이트처럼 격렬히 빛난다

그녀의 입은~, 시선의 이동 참

그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좌에서 우로 등 다양하다.

() 같은 선지 역시 시선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

“두만강에 풀빛은 짙어만 가는데 넘을 여인 슬픔은 더해만 가네” 같은 구절에서

외경에서 내경으로 즉 자연의 모습에서 내부의 정서로 시선이 이동함을 알 수 있다

바다 문학 개념어 1/3

“안저에 버려있는 붉은 꽃과 방초에는 나비가 찾아오고 높은 산봉우리에도 청초가 깃든구나”

같은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이동 역시 시선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할 부분이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전체 풍경에서 고라는 대상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다가 다른 대상만 보면서 이야기하면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풍경 속에서 ()

실제 시선의 이동은 대상이나 배경에서 () 드러나야 한다

()이라고 볼 수 있기에 시선이 잠시 머무는 것으로는 시선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정답>

화자의 이동

선경후정과 원경과 근경

잠시 시선이 머무는 곳은 있을 수 있으나

좌우전후 등이 더 명백하게

움직이는 대상

x- 화흥소에서는 선경을 빼놓고 섬다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있기는 하지만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화흥소 구절은 주의가 필요한데 천년 노후는 화흥소의 물결을 비유한 말이며 화자 자신을 비유한 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물결이 굽이굽이 서려있고 이 물이 이어져 넓은 바다로 이어질 것인데 화자는 풍운을 얻어 똥이 승천하는 것처럼 자신도 풍운을 얻어 선경을 빼놓고 섬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o- 상춘곡에서 화자는 시냇가에 앉아서 시냇가 앞쪽에 흐르는 청류와 그 위에 떠있는 도화, 그리고 뒤편까지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고산곡담에서 화자는 풍암의 절벽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x- 가의 경우에는 화자의 시선이 이동이 느껴지지는 않다. 위에서는 외적 모습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며 뒤에서는 화자의 내면으로 그 시선이 이동한다. 여기서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다는 주관적 감상은 선경의 일부로 역할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서는 주관성과 감흥의 성격도 강하다. 나에서는 화자의 내면과 외면 사이의 시선의 이동을 느끼기 어렵다

바다 문학 개념어 1/3

x- 선지의 앞 부분과 뒤 부분 모두 틀리다.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으며 모든 유혈이 꿈 같이 가고 역시 시간의 흐름을 명시적으로 서술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에서도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 개를 확인하기에는 어렵다, 우포늪에서 왁새가 날라가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심상

심상

마음 心 형상 像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형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시어를 읽으며 느끼는 감각적 인상

감각적 심상

<실제 선지>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고3 1606 31번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고3 1909 16번

<판단의 기준점>

시각적 심상- 모양, 색깔, 움직임, 의태어, 심상의 기초

청각적 심상- 소리 의성어

촉각적 심상- 바람 등이 피부로 인식하는 것, 젖었다, 차갑다 등 촉각, 젖다 적시다는 비유적으로 시각이 메인이 되기도 젖은 모습에서도 시각을 확인할 수 있음

미각적 심상- 쓰다 달다 등

후각적 심상- 냄새

<설명>

심상은 마음에 맺히는 상이다

감각적으로 경험한 형상이 마음 속에서 재생되는 것으로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사물의 감각적인 느낌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녀가 노래를 듣는다고 하면 노래라는 단어를 읽을 때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 소리가 나는 느낌이 들고 이때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가 노래를 듣는다고 할 때 이것을 시각적 심상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학생도 있다

바다 문학 개념어 1/3

위 문장을 읽을 때 그녀가 노래를 듣는 장면이 떠오르고 이것을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시에서의 기본은 시각적 형상화이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시각적 심상으로 봐야하는 문제와 감각적 느낌이라는 정의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각적 심상의 경우에는 색깔 모양 '움직임' 등이 느껴질 때 나온다고 하자 나는 깜짝 않고 그녀를 문 앞에서 기다렸다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실전에서는 색채어를 중심으로

모양의 경우 음성상징어 중에서 의태어가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젖다는 주의가 필요한데 그 자체의 감각적인 느낌은 촉각이 맞다, 따라서 촉각으로 기억하자

다만 하늘이 노을에 젖어있다 같은 비유적인 표현이면 시각적 심상으로 봐야한다

대표적인 구절이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다"같은 구절이다.

이때 젖다는 물에 젖다라는 중심적인 의미보다는 물들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

젖다 자체도 촉각이자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녀가 젖었다 등의 상향을 마음 속에 그려보면 흠뻑 젖은 상태가 눈에 그려지고 이것을 시각으로 인식하기에 시각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기출 0x>

(가)

도롱이에 흐미 걸고 벨 대은 소 물고

고동풀 뜯기면서 개울물 가 내리갈 제

어디서 풀 진 벗님이 함께 가자 하느고

둘러내자 둘러내자 우거지 긴 고랑 둘러내자

바람이 여뀌 풀은 마주 잡아 둘러내자

쉬 짙은 긴 사래는 마주 잡아 둘러내자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짙 대로 짙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에 아는 듯이 머무느고

-위백규, 농가-

바다 문학 개념어 1/3

(나)

동창이 밭았느냐 노고지리 우거진다
소 칠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러 하나니

-남구만, 동창이 밭았느냐-

(다)

사월이라 초여름 도니 입하 소만 절기르다
비 온 끝에 열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떡갈잎 퍼질 때에 배꼭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패어 나니 꼬꼬리 노래한다
농사도 한창이요 누에치기 한창이라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
적막한 사립문을 녹음 속에 닫았도다
목화꽃 많이 가꾸소 길쌈의 근본이라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곡을 적게 하소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
물 대 논을 써레질하고 이른모를 내어보세

-정학유, 농가월령가-

(가) (나) (다)에는 모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0 x)

(가)

이화우(梨花雨) 흠부칠 데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호노매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바다 문학 개념어 1/3

녹아지고 죽어져서 흰백조차 흩어지고
공산축류(空山 觸流) 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송이 되어 있어
바람비 백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윤희 만경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마음껏 솟아 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이 귀에 들리기도 옥항상제 처분일세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되어
실중에 혼자 피어 침실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가엾은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가

(가) (나) 모두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0 x)

(가) 높은디높은 산마루
넓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피스들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내려 떨어던 샛별아 숨으라.

바다 문학 개념어 1/3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기며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은데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약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바다 문학 개념어 1/3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뿔뿔이라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포

현하고 있다 고3 2106 22번(0 x)

(가)홍진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멋터하고

넷사람 풍류를 미칠가 못 미칠가

천지가 남자 몸이 날만 한 이 하건마는

산림에 못쳐 이서 지락을 모를 것가

수간모옥을 벽계수 알피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서라

멋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령화는 석양리에 띄어 있고

녹양방초는 세우 중에 푸르도다

칼로 몰아 번가 붓으로 그리 번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훈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고태로다

물아일체어니 흥이야 다들소냐

시비에 거러 보고 정자어 안자 보니

소요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트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바다 문학 개념어 1/3

답청이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새
아침에 채산라고 나조해 조수하 새
갓 리여 님은 술을 갈건으로 밧타 노코
곶나무 가지 것거 수 놓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 듯 부러 독수를 건너오니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
준중이 뷔엇거든 남다러 알외여라
소동 아히드러 지가에 술을 물어
얼은 막대 집고 아리는 술을 메고
미음안보하야 시냇가의 호자 안자
명사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를 굶어보니 더오느니 도화이로다
무릉이 갓갓도다 저 때이 귀 기인고 - 정극인, 상훈곡-

(나) 고산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
주모복거하니 벗넘네 다 오신가
어즈버 무이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1수>

일곡은 어디의오 관암에 해 비취다
평묵에 내 거드니 원산이 그림이도라
송간에 녹준을 노코 벗 오는 양 보노라 <2수>

이곡은 어디의오 화암에 춘만커다
벽파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 엇더리 <3수>

오곡은 어디의오 은영은 보기 다투타
수변 정사는 소쇄함도 가이 없다
이 중에 강향고 하리니와 영결음풍하리라 <6수>

바다 문학 개념어 1/3

칠곡은 어디의도 풍암에 추석 뚝타
청상 열게 치니 절벽이 금수이르다
한암에 혼자서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8수>

구곡은 어디의도 문산에 세모커다
기암리석이 눈 속에 묵쳐세라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엇다 하더라 <10수> -이이, 고산구곡가-
음성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고3 2009 16번 (O X)

“자아! 자아! 못 죽이겠니?”
손이 땀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댄다. 서희 얼굴이 흠뻑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흥 씨 손에 옷고름이 남는다.

“감히 누굴! 감히!”
하다가 불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
다.

“어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딱 멈춘다. 돌아본다. 흠뻑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고3 2006 16번 (O X)

(가)생평에 원하나니 다만 충혼뿐이르다
이 두 일 말면 금수나 다트리야
마음에 하고져 하야 십재항항하노라 <제수>

계고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바다 문학 개념어 1/3

부급동남하야 여공불급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나 못이룰까 하야라 <제2수>

강호에 놀자하니 성주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에 어긋나네

호운자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은

명철군자는 이룰사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 | 라 빈천거를 하오리라 <제8수>

행장유도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라

산지남 수지북 병들고 늙은 나를

누라서 회비미방하니 오라 말라 하노는 <제14수>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에 한가지라

은커나 현커나 도 어찌 다르리

일도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덴들 어대리 <제 17수>

십재항항: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계교: 견주어 헤아림

부급동남: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여공불급: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행장유도: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회비미방: 뛰어난 능력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현: 세상에 나아감

-권문호, 한겨레신문

(나)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바다 문학 개념어 1/3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울엄마야 울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끝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말다 해도

오명 가명

신세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땠었을까,

달 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 같이

말없이 글성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고3 1909 16번 (0 x)

<빈칸>

심상은 ()이다

감각적으로 경험한 형상이 마음 속에서 재생되는 것으로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사물의 감각적인 느낌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녀가 노래를 듣는다고 하면 노래라는 단어를 읽을 때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 ()이 들

고 이때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가 노래를 듣는다고 할 때 이것을 시각적 심상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학생도 있다

위 문장을 읽을 때 그녀가 노래를 듣는 장면이 떠오르고 이것을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다. 물론 시에서의 기본은 ()이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시각적 심상으로 봐야 하는 문제와 감각적 느낌이라는 정의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각적 심상의 경우에는 ()등이 느껴질 때 나온다고 하자 조금 더 넓히

바다 문학 개념어 1/3

자면 나는 문에 기대선 채 그녀를 기다렸다처럼 눈에 그려지는()에서도
침이라고 할 수 있다.

모양의 경우 음성상징어 중에서 ()가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젖다는 주의가 필요한데 그 자체의 감각적인 느낌은 축각이 맞다, 따라서 축각으로 기억하자 다만
하늘이 노을에 젖어있다 같은 비유적인 표현이면 () 심상까지 확장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구절이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다”같은 구절이다.

이때 젖다는 물에 젖다라는 중심적인 의미보다는 물들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

꼭 이런 표현이 아니라도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녀가 젖었다 등의 상황을 마음 속에 그려보면 흠뻑 젖은 상태가 눈에 그려지고 이것을 시각으로 인
식하기에 시각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cf) 참고

시에서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형상화의 기본은 시각이 맞다. 다만 문학 개념어로 시각적 심상을 묻는
다면 모양과 색깔을 더 나아가서 움직임도 기억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 시각적 심상을 확인하는 과
정에서 자연물이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ex) 복숭아꽃- 붉은 색의 색채 이미지

<답>

마음에 맴도는 상/소리가 나는 느낌/ 시각적 형상화/ 모양 색깔 움직임/ 구체적인 상태와 상황 모
습/의태어/ 시각적

x- 가의 경우에는 파람에서 청각적 심상을 다에서는 버섯새의 울음에서 청각적 심상이 느껴진다 그리
나 나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등장하지 않는다.

o- 계절적 이미지라는 표현은 춘추동의 구체적인 표현이나 그 계절의 자연물을 확인하면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물은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문학개념어로의 ‘시각적 심상’으로도 적절
하다. 여기서는 추풍낙엽, 가을 달 같은 표현을 통해서 계절적 이미지의 활용한 시의 분위기 형성이 드
러난다.

x- 다른 조건이 없다면 형상화의 가장 기초는 시각화로 시각적 심상은 기본이다. 다만 실제 시험으로
등장하는 문학 개념어의 경우에는 색채 움직임 모양을 가지고 읽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넓은 고목에

바다 문항 개념어 1/3

기대서 긴 밤을 고민했다 같은 구체적 상황의 문장을 읽으면 그 모습이 마음 속에 그려지고 이를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맞으나 이런 뉘앙스 보다는 시들은 핏줄, 내려 떨어질 색칠, 떠오르는 햇살 같이 모양 색깔 움직임이 명확한 구절을 시각적 심상과 시각적 이미지로 연결시키자, 청각적 심상은 의성어 같은 음성 상징어가 중요한 기준이다 아삭아삭이 대표적이다. 뽕거리다 같은 동사 역시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선지를 살펴보면 자연의 위대함을 나타내지 않기에 또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에 거짓이다

X- 가와 나 모두 음성상징어가 드러나 있지 않다.

O- 와락와락 고래고래 같은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행동의 격렬함을 표현하고 있다 와락와락과 고래고래는 사전상 모양을 의미한다

X- 둘 경우 모두 의성어와 의태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공감각

감각의 전이

동시적으로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것이 중요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감각이 어떻게 바뀔 전이되는지 파악

<실제 선지>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고3 19수능 34번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깔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고3 19수능 34번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고3 1906 28번

<판단의 기준점>

a같은 b

a한 b

바다 문학 개념어 1/3

b가 a하다

의미와 맥락상 한 문장으로 묶이는 경우

<설명>

공감각적 시어

a같은 b

a는 b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b는 a하다 등 의미나 문맥상 한 문장으로 묶여 있으면 공감각적 심상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푸른 종소리이며 이는 종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푸르다라는 시각적 심상에

연결한 표현이다.

이처럼 공감각은 동시에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키는 것이 핵심

검정포대기로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

종소리가 푸르다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와 같은 공감각에서는 복합감각과의 구분이 중요하다,

복합감각은 다양한 감각이 나열되는 것으로 전이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푸른 꽃잎이 향기롭다. 의 경우에는 꽃잎이 푸르다/ 꽃잎이 향기롭다로 각각 따르따르 나눌 수가 있다

그러나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의 경우에는 새파란 초생달의 달빛이 시리다로 분석해야 한다.

초생달은 시각으로만 경험이 가능하며 이렇게 경험한 형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될 때도 기본적으로 시각

그런데 이러한 시각을 촉각으로 전이시켰기에 이것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공감각과 복합감각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며

둘 이 동시에 가능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자

ex)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물소리가 시리다 같은 형태는 아니다

바다 문학 개념어 1/3

레몬향에 몸이 떨리다가 공감각이 아닌듯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역시 물소리라는 청각적 심상과

이가 시리다는 촉각적 심상이 따로 쓰인 복합감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공감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물소리가 이가 시리다'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물소리라는 청각을 이가 시리다는 촉각으로 전이한 것

의미와 맥락상 한 문장으로 연결한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이 젖지 않는 그 서늘함”라는 구절 역시

공감각과 복합감각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가슴에 비가 뿌리고/ 옷은 젖지 않고/ 서늘함은 느껴지고로 복합감각

가슴에 비가 뿌리고 옷은 젖지 않는 (그 소리가) 서늘하다로 공감각도 가능하다

다만 주로 전자로 본다. 후자의 경우에는 앞 부분에 파초에 후두기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기에

그 소리가 서늘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다만 구절 자체만으로 놓고 본다면 붉은 서늘함 같은 구절은 공감각이 맞으며 우선적으로 인식한 서늘함이

라는 감각이 붉음이라는 시각으로 전이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 젖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

젖다는 표현은 기본은 촉각 비유적으로 시각 그리고 젖은 모습과 관련한 시각이 모두 가능하다.

<기출OX>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 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걸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달 바다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나비 허리’와 ‘물결’을 연관지어 연상한 공감각적 심상일 거야(O X)

바다 문학 개념어 1/3

두툼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 독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 와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뽕빛 위에 자운영 꽃을 질러 놓는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험혈단신

터덜터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겨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늪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쭉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해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는가

소목 장재 툇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재 넘어가는

저 와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부르익힌다

- 배한봉, 우포늪 와새-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0 x)

가야금 곡조 딸 광한루까지, 훈향의 마음과 어우러지는 옥빛 소리 한자락, 우리의 연구소에서 즐겨보시다

공감각적 표현이 드러나 있다 (0 x)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03 19수능 34번 (0 x)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바다 문학 개념어 1/3

뫼를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떠난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리꽂고 사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사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물리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깔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고3 19수능 33번(0 x)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왁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밭 질러 놓는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헛헛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커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바다 문학 개념어 1/3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늘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든가
소목 장재 툇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환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왁새 : 왜가리의 별명.

* 동편제 : 판소리의 한 유파

- 배한봉, 우포늪 왁새 -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고3 1906 28번(0 x)

<번안>

()

()꿈속에서도 툇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던

()등 의미나 문맥상 ()으로 묶여 있으면 공감각적 심상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푸른 종소리이며 이는 종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푸르다라는 시각적 심상에 연결

이처럼 공감각은 동시에 ()이 해석

검정포대기로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툇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

종소리가 푸르다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와 같은 공감각에서는 ()과의 구분이 중요하다,

복합감각은 다양한 감각이 나열되는 것으로 ()가 없다는 것이 해석이다

푸른 꽃잎이 향기롭다. 의 경우에는 (/)로 각각 따로따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나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의 경우에는 새파란 초생달의 달빛이 시리다로 분석해야 한다.

초생달은 시각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경험한 형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될 때도 기본적으로 시각

그러나 이러한 시각을 촉각으로 전이시켰기에 이것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

ex)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물소리가 시리다 같은 형태는 아니다

비다 문학 개념어 1/3

레몬향에 몸이 떨리다가 공감각이 아닌듯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역시 물소리라는 청각적 심상과 이가 시리다는 촉각적 심상이 따로 쓰인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공감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물소리라는 청각을 이가 시리다는 촉각으로 전이한 것
의미와 맥락상 한 문장으로 연결한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다
ex2)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이 젖지 않는 그 서늘함"라는 구절 역시
공감각과 복합감각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가슴에 비가 뿌리고/ 옷은 젖지 않고/ 서늘함은 느껴지므로 복합감각
가슴에 비가 뿌리고 옷은 젖지 않는 (그 소리가) 서늘하다로 공감각도 가능하다
다만 주로 전자로 본다. 후자의 경우에는 앞 부분에 파초에 후두기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기에
()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답>

a같은 b

a한 b

b가 a하다, 한 문장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는 것이 핵심

복합감각 전이

꽃잎이 푸르다 꽃잎이 향기롭다

둘 다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복합감각

물소리가 이가 시리다

소리가 서늘하다

0-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시각적 심상의 촉각화가 이뤄진 공감각적 심상이 맞다

0-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이 적시고 꽃볼을 질러 놓는 시각적 심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젖다는 기본이 청각에 구름이 젖다 등의 비유적인 이미에서는 시각, 젖은 모습으로도 시각적 심상이 가능하다

바다 문항 개념어 1/3

0-옥빛 소리, 즉 소리가 옥빛이다로 청각의 시각화가 드러나고 있다

0- 까마귀 울음 소리가 우선 느껴지고 이를 '검정 포대기 같은'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시각으로 전이하고 있다 따라서 청각의 시각화이며 이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참이 된다

x- 이미지는 넓게는 느낌이지만 좁게는 심상과 동의어로 감각적으로 경험한 형상이 마음 속에서 재생되는 것. 즉 사물의 감각적인 느낌을 말한다,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이 보여주는 모습은 시각적 느낌으로 공감각보다는 시각이 적절하다.

0- 우선 청각의 시각화는 우포늪 왁새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독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의 경우에는 청각의 시각화가 느껴지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왁새 울음 되어 우양산 솔밭을 다 적시고 역시 청각의 시각화로 볼 수 있다. 물론 적시다는 축각도 가능하다, 뒤에서 왁새 울음 되어 우양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밭 질러 놓는다도 청각의 시각화로 볼 수 있다.

바다 문학 개념어 1/3

표현법

비유하기, 변화주기, 강조하기의 3대장을 기억하기 이 아래에서 다양한 표현법을 살펴보기

반어 뒤집을 反 말씀 語

강조하기

반어: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 ≡ 아이러니

반어법: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며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구미)법, 풍자나 위트, 역설 따위가 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패러독스의 일종

<실제 선지>

인물의 반어적인 발화를 제시하여 다른 인물의 의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고31606 34번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고30501비 21번

<판단의 기준점>

반어법 = 표현적 반어

- 의도와 반대
 - 의도 상 당연히 부정적인 표현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긍정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
- ex) 인색한 사람에게 '참 푸지게도 준다!'

반어적 상황 = 아이러니한 상황 = 상황적 반어 = 역설적 상황

- 상황과 반대
- 기대한 상황과 실제 일어난 상황, 표면적 상황과 이면의 상황이 반대되는 것
- 신명이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명이 난다고 표현한다. 겉으로는 표현적으로는 신명이 나는데 실제 이면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ex) '운수 좋은 날' 기대되는 상황, 검침지가 인식하는 것은 매우 운수가 좋은 날로 집으로 돌아와서도 행복해야 함 그러나 실제 일어난 상황은 아내의 죽음, 이것이 상황적 역설, 반어적 상황, 아이러니한 상황. 아이러니한 상황

ex2) '심청전'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아무 것도 모르는 아버지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기

바다 문학 개념어 1/3

별 상황 그러나 이면의 상황은 심청이가 죽기를 기다리는 비극적인 상황 이것이 반어적 상황 역설적 상황, 아이러니한 상황

<설명>

반어는 주로 반어법으로 등장하며 역설 즉 패러독스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반어는 반어법으로 주로 이해되기에 의도와 반대되는 즉 참뜻과 반대되는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적 반어 역시 존재하며 이 상황적 반어는 역설적 상황, 아이러니한 상황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패러독스 안에 역설적 표현과 아이러니한 표현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이중 아이러니는 익숙한 표현이자 따로 보기형 문제로 등장했을 만큼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반어적 상황의 경우에는 그녀를 사랑하기에 기쁘게 매를 맞는 상황 등 겉으로 드러난 상황과 이면의 상황이 다르거나, 기대한 상황과 실제 발생한 상황이 다른 경우, 즉 한 상황에 +와 -가 공존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아이러니의 핵심은 양면성이다. 심리에서의 양면성이 공존하는 경우 한 대상에서 양면성을 확인하는 경우 인식과 행위가 다른 경우에 아이러니를 읽어낼 수 있다.

<기질 O X>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민 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복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반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민 노인의 관참은 기분을 구석으로 때밀어 조각을 내었다.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쫓고 있음을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

아버지의 복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한평생이, 일단은 세련된 입신(立身)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에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복을 떼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체한 민약터, 한때는 아편쟁이로 세상을 구른 민약터, 그러면서도 복을 놓지 않은 그와 아들의 단절은,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시아버지의 그런 생애와 전적으로 무관한 며느리가, 떼어 버릴 수도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을지언정, 자기를 볼곧게만은 대할 수 없는 형편임을 민 노인은 이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다 늦게 아들에게 집을 찾아온 영감을 대하던 마누라의 눈에도, 당장은 증오가 앞섰으니까 더 할 말이 없다. 그래도 할망구가 살아 있던 시절은, 미움과

바다 문학 개념어 1/3

연민을 골고루 섞어 가면서도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 주어 견디기가 쉬웠는데, 외톨이로 남으면서 운신하기가 수월찮았다. 그러나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낯선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부담의 차원보다는 아버지를 접함으로써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력을 떠돌리기 때문이 아닌가 하였다.

(중략)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단히 불만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예요.”

“㉔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의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지요.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과격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훈계하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를 후려쳤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속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예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책거 넣고 하지 마세요.”

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레 툭툭은 목소리가 되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쑤는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 봐라…….’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을 저도 이해합니다.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복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바다 문학 개념어 1/3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복을 빼앗는 건, 할아버지의 한(恨)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 최일남, 흐르는 복 -

②: 인물의 반어적인 발화를 제시하여 다른 인물의 의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O X)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울속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루하는 흰 새대들이

자기들끼리 기록거리면서

일컬어 이럴 삼얼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매고

이 세상 밖으로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깁깁대면서

깁깁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가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 앉는다

-항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X)

바다 문학 개념어 1/3

03 2106 24번 보기

나무의 수사학 1 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방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방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약착감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견뎌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태석, 나무의 수사학 1-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다.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는군.

바다 문학 개념어 1/3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내고 있다.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을 보여 주고 있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다.

<비난>

반어법 = () 반어

- ()와 반대

- 의도 상 당연히 부정적인 표현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긍정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

ex) ()한 사람에게 ‘참 푸지게도 좋다!’

반어적 상황 = () 상황 = 상황적 반어 = () 상황

- 상황과 반대

- 기대한 상황과 () 상황, 표현적 상황과 ()의 상황이 반대

<정답>

표현적, 의도, 부정적/잘못한

역설적, 아이러니한, 실제 일어난, 이면

○ : 아들과 민노인은 갈등관계로 둘은 복을 치는 것을 가지고 대립한다. 아들은 민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와 반대로 할아버지를 옹호하는 성규에게 기특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의 의도와 정서와는 반대되는 표현적 반어이다

○ : 화자는 새들을 부러워하며 이 세상 밖으로 자유롭게 날아가기를 꿈꾼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저않게 되는 상황으로 이를 통해 공동체의 현실 즉 군복 독재에 대한 조롱과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청한다는 표현의 화자의 인식과 의도와는 반대되는 표현적 반어이다.

표현적/ 의도/ 인식

아이러니한/ 역설적/ 실제 기대/ 일어난 이면

cf) 아이러니는 양면성, 상황, 심리, 대상

바다 문학 개념어 1/3

O: 보기를 활용해서 작품을 읽어야 한다. 나무의 의도이자 심리와 반대되는 걸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이를 나무의 방어법으로 서술한 것이다. 또 걸로는 잘 적응하는 나무의 모습이 실제로는 매우 힘들고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고 본다. 들뜬 뿌리는 적응이 힘든 화자의 동질감으로 읽어낼 수가 있다

O: 보기를 활용할 때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로 읽어낼 수가 있다

O: 시끄럽고 힘든 도시 환경을 드러내기에 보기를 같이 읽을 때 참임을 알 수가 있다

O: 고통스러운 병증을 서술함으로써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야 하는 고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X: 나무는 그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다만 그의 진짜 심리는 치욕과 부끄러움 비판적인 인식이다.

설의

배틀 設 의심할 疑

누구나 알 수 있는 생각이나 정서를 의문형 종결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는 수사 기법
변화주기

<실제 선지>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고3 2109 38번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고3 2109 43번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리로오라'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고3 20수능 22번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고3 20수능 34번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고3 20수능 43번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고3 2009 17번

남다 문항 개념어 1/3

<판단의 기준점>

대답을 요구하지 않은 수사의문문 중

내가 구세주임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반어의문문, 의미강조

얼마나 좋을까- 감탄의문문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하나- 갈 곳이 없다는 명확한 답변& 안타깝다 정서 강조

가난아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올 것이냐- 이제 그만 쫓아오라는 명령

다만 단순 의문/ 하소연은 제외하는 경향(논란- 선생님마다 설명이 다르다 우리는 좁게)

<설명>

의문문의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 수사의문문이 설의와 연결된다

너는 어디서 왔니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의문문

너는 학생이니 같은 예 아니요의 답을 요구하는 판정의문문

형식상 의문문이지만 내용상은 의문문이 아닌 수사의문문이 있다

수사 의문문의 경우에는 반어, 금지와 권고, 명령, 감탄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반어의문문을 통한 의미 강조, 금지와 권고 그리고 명령, 감탄을 포함한 정서 표현 등이 존재한다

ex)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공부할까, 돌아가지 못할까, 얼마나 좋을까

ex) 생평에 원하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나 다르리야- 금수와 다르지 않다.

설의는 이러한 수사의문문과 연결되며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매우 확실한 생각과 정서를 의문형 서술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의문형이며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특정한 말이 대답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정한 말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매우 확실한 생각과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확대해서 궁금해서 묻지 않는 것

실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모두 설의법으로 설명하는 관점이 있다

가난아 나는 왜 이럴까, 가난에게 화자는 대답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서와 생각 즉 명백한 정서와 생각이라는 기준점에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 중에서 명령, 의미강조(반어), 정서표현(감탄, 답이 있는

바다 문학 개념어 1/3

정서 강조는 설의법으로 넣고

단순 의문의 경우에는 설의법으로 넣지 않는 설명도 강력하다. 여기서는
단순의문과 하소연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누이여 어찌 이리 일찍 가셨습니까, 가난아 나는 왜 이러냐 같은 구절을 설의법으로 넣지 않는 설명은
위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기출0x>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짐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늪들은 운는다 혼다마는

㉠ 어리고 하얗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혼노라 <제1수>

보리밥 푸는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 곳 물그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를 보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랴

말슴도 우웁도 아녀도 몬내 묘하흐노라 <제3수>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랴

이제르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뚝더라

아마도 넓은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큰실사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혼 일도 아니 맞더

다만당 득토리 읍순 강산(江山)을 덕히라 흐시도다 <제5수>

강산이 묘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먼느냐

바다 문학 개념어 1/3

남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흐야도 히을 일이 업세라 <제1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세넷짚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㉔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고 2109 38번 (0 x)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향환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바다 문학 개념어 1/3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옥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고3 2109

43번 (0 x)

동녘 두툼 밭과 크나큰 너븐 들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흰 밭치 되야 있다

중양이 거의로다 내노리 흐 자스라

블근 게 여물고 누은 들기 슬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밍슬소냐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더 가노매라

살여를 긴 몰래예 밤불이 불가시니

게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있고

호두포* 먼 귀의예 아적물이 미러오니

뚝든 비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푸는 당식(堂食)로다

경(景)도 두커니와 생리(生理)라 리로오랴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리로오랴'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

현으로 드러냈군 고3 20수능 22번(0 x)

[A]

바다 문학 개념어 1/3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든,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귀태여 나의 아름다운 남군을 배배앗아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우주 사이는 우리러 바라보기나 하리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 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활하여 아버지, 어머니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었다면 남군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B]

“남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남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귀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택에 들어온 지 오륙일이 지났으나 조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리러는 바는 아버지, 어머니와 남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 하시니 그 위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물이 며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실례를 면하고 돌아왔사옵니다.”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고3 20수능 34번 (0 x)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바다 문학 개념어 1/3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고3

20수능 43번(O X)

이곡은 이디미오 화암에 훈만커다

벽파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 멋더리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고3 2009 17

번(O X)

(가)성평에 원하나니 다만 충혼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나 다드리야

마음에 하고져 하야 십재항항하노라 <제1수>

계교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하야 여공불급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나 못이룰까 하야라 <제2수>

강호에 놀자하니 성주를 버리겄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략에 어긋나네

호운자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

바다 문학 개념어 1/3

명철군자는 이룰사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 1 라 빈천거를 하오리라 <제18수>

행장유도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라

산지남 수지복 병들고 늙은 나를

취라서 회보미방하니 오라 말라 하느뇨 <제16수>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에 한가지라

은커나 현커나 도 어찌 다르리

일도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덴들 어대리 <제 17수>

십재항항: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계교: 견주어 헤아림

부급동남: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여공불급: 이르지 못할까 두렵워하듯 함

행장유도: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를 행하고 버리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회보미방: 뛰어난 능력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현: 세상에 나아감

-권문호, 한겨레신문-

(나)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울엄마야 울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꿀방 안 되어

바다 문학 개념어 1/3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세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을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성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박재삼, 추억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고3 1909 16번(0 x)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흐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 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 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벽은 꿈 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교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며.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열매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별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흐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병우, 휴전선 -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고3 1906 28번 (0 x)

바다 문항학 개념어 1/3

<빈칸>

의문문의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 ()이 설의와 연결된다

너는 어디서 왔니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의문문

너는 학생이니 같은 예 아니요의 답을 요구하는 ()

형식상 의문문이지만 내용상은 의문문이 아닌 수사의문문이 있다

수사 의문문의 경우에는 ()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반어의문문을 통한 의

미 강조, 금지와 권고 그리고 명령, 감탄을 포함한 정서 표현 등이 존재한다

ex)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공부할까, 돌아가지 못할까, 얼마나 좋을까

ex) 생평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 1 나 다르리야- 금수와 다르지 않다.

설의는 이러한 수사의문문과 연결되며 ()를 의문형 서술

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의문형이며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특정한 말이 대답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정한 말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매우 확실한 생각과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확대해서 궁금해서 묻지 않는 것

()으로 설명하는 관점이 있다

가난아 나는 왜 이럴까, 가난에게 화자는 대답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서와 생각 즉 명백한 정서와 생각이라는 기준점에서 흔들

리는 부분이 있어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 중에서 ()

설의법으로 넣고

단순 의문의 경우에는 설의법으로 넣지 않는 설명이 좀 더 보편적이다

즉 진짜 궁금해서 묻는 의문에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명령, 의미 강조, 감탄이나 답이 있는 정서 강조가 아닌 경우를 더하는 것이다

누이여 어찌 이리 일찍 가셨습니까, 가난아 나는 왜 이러냐 같은 구절을 설의법으로 넣지 않는 설명은

비다 문학 개념어 1/3

위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정답>

수사의문문, 판정의문문, 반어, 금지 권고, 명령, 감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매우 확실한 생각과 정서

실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모두 설의법

명령, 의미강조(반어), 정서표현(감탄, 답이 있는 정서 강조)는

cf) 설의적 표현과 영탄법: 설의적 표현의 경우에는 확실한 생각과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기에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는 영탄적 어조와 이어진다

x-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라기보다는 화자 자체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이 부분이 5수와 연결되지 않는다.

x-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에서 의문형 종결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영은 죽어있다는 화자의 안타까운 인식을 드러내는 설의적 표현이며 이러한 표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의문형 종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의 부정은 아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x- 생리가 괴롭지 않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는 내용을 의문형으로 제시하여 강조의 효과를 드러낸다, 따라서 설의적 표현은 맞으나 생명의 고단함이라는 내용이 틀려서 거짓이다.

o- 우선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양관을 배배앗아가 위세로써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겠는가 어찌 알리오 어이 될고 등의 의문형 종결이 드러나 있으며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망백한 대답을 요구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화자는 아직 '확실한' 답과 정서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고도 볼 수 있다고 기억하자.

x- 우선 물문의 형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내적 고뇌를 통해서 우리는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찰과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단정한다고 할 수 없다.

신다 문항 개념어 1/3

0- 설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형 종결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어떻게”라고 묻고 있기에 이는 참이다, 알게 해도 괜찮다는 명확한 답이 존재한다.

0- 가에는 설의가 나에는 의문형 종결이 등장하며 이를 볼 때 둘 다 의문형 어미가 등장함을 알 수 있다. 가에서는 다르리아 하오리라 어찌 다르리 하느뇨 등은 모두 설의적 의문으로 볼 수 있으며 나에서의 한이던가 등의 표현은 모두 의문형 종결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도 설의법에 대한 설명의 범주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따라서 명확하게 나누는 범이기도 하다. 우선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어미의 마음은 어디했을까는 안타까움이자 답을 모르기에 의문으로 보는 것이 좋고 한이던가는 한이다의 강조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의문형까지로만 봐야 한다.

0- 우선 가에는 설의법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반의적 설의법으로 드러나며 이를 통해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다만 1연과 5연 이외에도 각연의 종결부위에서 설의법을 확인할 수가 있다.

실제 시험에 등장하고 다른 해설지에도 등장하는 것은 명백한 기준인 반어인 1연과 5연이다, 다만 안타까움의 정서와 그려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다는 명백한 답변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그리고 해석의 전체적인 유기성을 고려할 때 전체를 설의법으로 설명하는 구조도 이해할 수 있다.

바다 문학 개념어 1/3

운율

<운율에 관한 서술 고3 1909 16-20>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독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중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 고전시가에 없던 숨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멀위랑/다래랑/머교”와 같은 고려 속오의 3음보, “동짓달/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찌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찌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ex) 울 엄마야 울 엄마

(나)에서 ‘울 엄마야 울 엄마’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고3 1909 20번 (O X)

O- 모습과 L L L O 중 모습과 L L O 을 반복해서 리듬을 창출하고 있으며 울 엄마에의 힘든 삶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ebs 답지를 참고할 때 이 안타까움을 애상감 즉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운율은 리듬감으로 반복이 핵심

같은 음운, 울림소리 등 유사한 음운, 단어, 구절, 문장, 시행, 통사구조+수미상관 등

무엇인가가 반복될 때 운율이 형성, 따라서 반복이 핵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운의 반복, 단어의 반복, 구절의 반복, 문장의 반복, 시행의 반복, 통사구조의 반복 등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수사법 중 강조하는 효과가 큰 반복법과 연결된다.

이 부분에서 한 번 보고 뒤에서 또 한 번 보자

바다 문항 개념어 1/3

cf) 이론적인 부분 잠시 살펴보기

운율은 압운+ 홑격 즉 운+홀

운은 같거나 유사한 소리의 반복

홀은 소리의 고저 장단 강약 같은 소리 덩어리의 반복

운의 대표적인 부분은 두운 요운 각운 등 같거나 유사한 소리가 행이나 연의 특정한 위치에서 반복

홀은 우리 문항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아 우리 문항은 음보홀이나 음수홀에서 찾는다

이러한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은

ex) 자음 π 과 σ 의 반복- 행 안에서/ 실제 시험에서는 행간 같은 위치에서 같거나 유사한 소리의 반복이 등장

신이나 삼아 줄 걸 슬픈 사연의

목울이 아로새긴 육날 매투리

유사한 음운을 반복하기

ex) 날 맑은 날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λ 울림소리의 반복

같은 단어와 어구를 반복하기

의성어 의태어의 반복

음수홀

음보홀

같은 문장을 반복하기

같은 통사구조를 반복하기

같은 시형을 반복하기

이러한 반복을 앞과 뒤에 배치하기 등이 있다

cf) 이후 수업 내용 대구법: 문장 구조의 데칼코마니 vs 데칼코마니가 아닌 경우(같은 구절의 반복)

- 문장 구조와 짝 -실제로는 형식 형태소까지- 단순한 시구의 반복 - 3구절 이상- 그냥 가치의 짝